

서울시민을 위한 대화형 모바일 AI 에이전트

말하면 척척

말 한마디로 실행하는 새로운 AI 공공앱 서비스





01 서비스 필요성

시민 편의를 위한 모바일 공공 서비스,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

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
일반 국민 대비

28.2%p 낮음

복잡한 UI 탐색에 막히는
공공앱 서비스

* 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(2025)」
일반국민=100 기준 재산출(100-71.8)



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
일반 국민 대비

34.1%p 낮음

기기 조작과 정보 탐색의 어려움

* 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」(2025)
일반국민=100 기준 재산출(100-65.9)



시각장애인
상품·서비스 정보 확인 어려움 경험

99.2%

모바일 앱 정보 접근의 어려움

* 출처: 한국소비자원, 「시·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실태 조사」(2022)



Pain Point | 복잡한 메뉴와 잦은 화면 이동 반복적인 터치조작·정보입력 오류·진행 상태를 알기 어려운 흐름

고령층·장애인의 **디지털 소외**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**사회 문제**입니다



02 기존 서비스의 한계

모바일 음성 비서가 있지만,
대신 일 해주지 못합니다. 왜 그럴까요?



"서울동행맵에서 서울시청 가는 길 찾아 줘"

"관련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."



"배달의민족에서 국밥 주문해 줘"

"직접 실행하거나 주문할 수 없어요."

글로벌 모바일 비서 음성명령 실행 결과

- 국내 이용순위 상위 100개 앱 대상 -



Apple Siri

99% 실패



Google Assistant

96% 실패



삼성 Bixby

89% 실패

글로벌 모바일 비서 음성명령 성공률, 단 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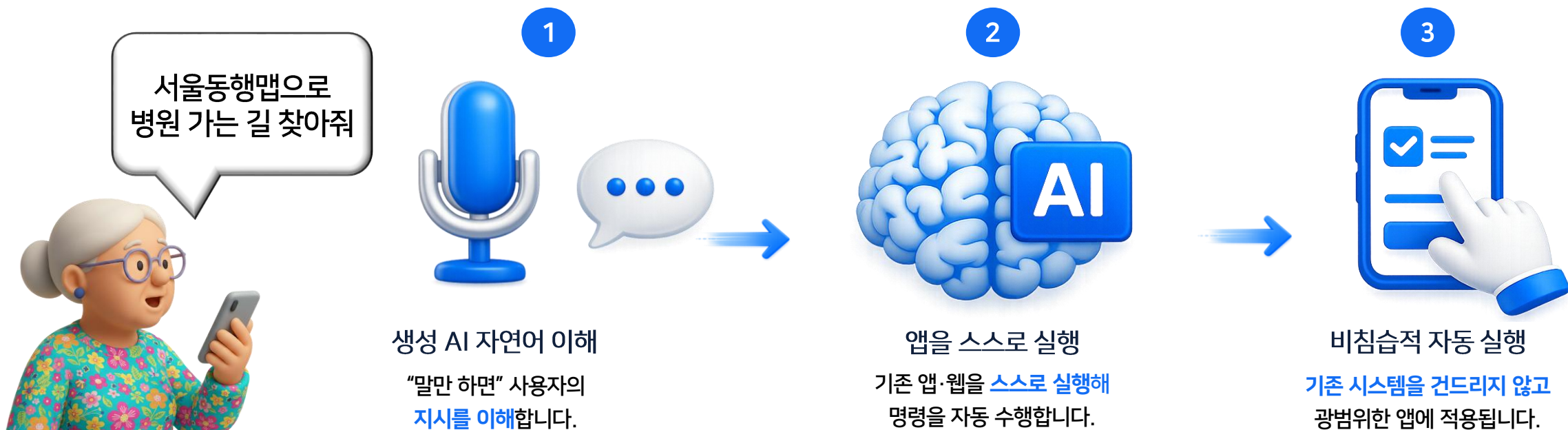
* 국내 이용자수 상위 100개 앱에 동일한 음성명령을 입력해 실행 성공·실패를 집계 (2025.10.21)

기존 음성비서는 앱마다 API 연동이 필요하지만, 말하면 척척은 연동 없이 화면을 보고 직접 실행합니다



03 서비스 이해

말 한마디로 모바일 앱을 쉽게 쓰는 <말하면 척척>



말하면 척척은 스마트폰을 말 한마디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도우미입니다.
복잡한 화면 조작 없이 말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, 디지털 세상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.



04 작동 방식

사람처럼 화면을 보고, 직접 실행합니다

API 없이, 코드 수정 없이 — 생성형 AI가 화면 속 내용을 이해하고 명령을 수행합니다.

STEP 1

음성 명령

에이전트에게 원하는 내용을 말로 지시합니다.

STEP 2

이해·탐색·판단

LLM이 현재 화면에서 가능한 작업을 탐색하고 무엇을 할지 판단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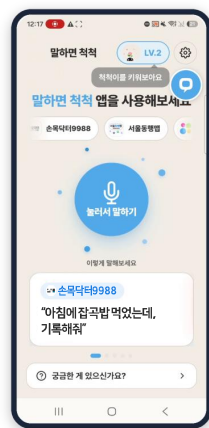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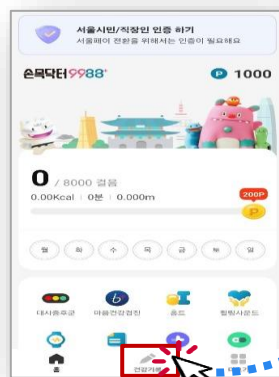
STEP 3

앱 자동 실행

클릭·입력·스크롤 등의 동작을 대신 수행하고 완료되었음을 안내합니다.

예시 · 손목닥터9988 식단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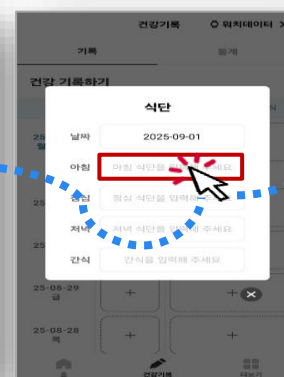
아침에 잡곡밥 먹었는데,
기록해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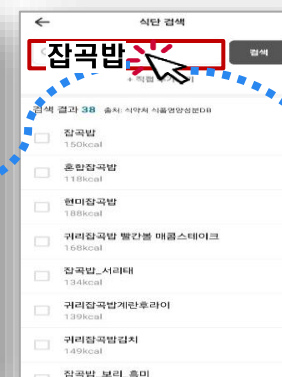
"건강기록" 이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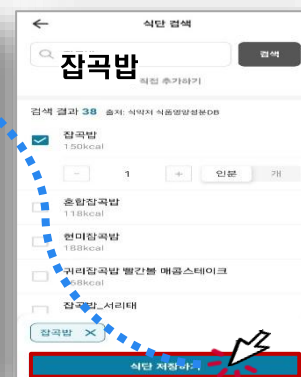
"식단" 클릭



"아침 식단" 클릭



"잡곡밥" 입력/검색



식단 저장하기

사용자와 모바일 AI 에이전트의 대화

모바일 AI 에이전트가 손목닥터 9988 앱을 실행하여 사용자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



05 활용 범위

공공앱부터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까지, 말로 실행합니다





06 앱 다운로드

지금, 말하면 척척을 시작하세요

① 카메라 실행

홈 화면에서 [카메라] 앱을 실행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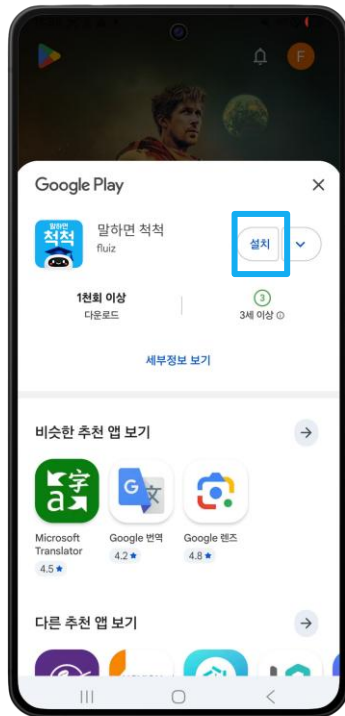
② QR 코드 스캔

카메라에 QR코드를 비추고, 화면에 나타난 '플레이스토어 링크' 버튼을 누릅니다.



③ 앱 설치

플레이스토어 화면으로 이동하면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.



QR코드로 받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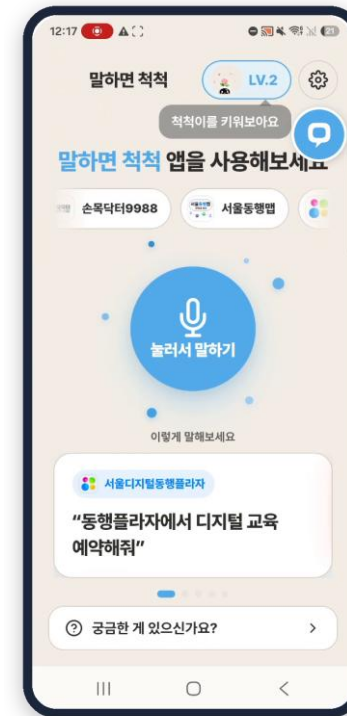
또는
Play 스토어에서
'말하면 척척' 검색



말하면 척척

④ 앱 설정하기

앱 설치 후 안내에 따라 초기 설정을 마치고 사용해 보세요.





07 운영 기관 소개

AI기술을 통해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꿈꿉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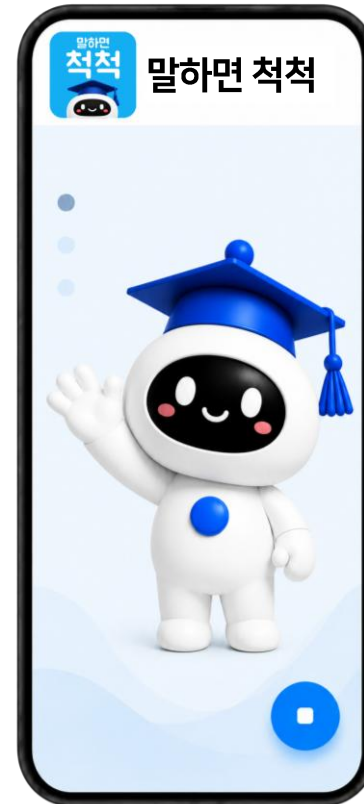
공공 AI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AI 기술이 만나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서울AI재단

서울 AI 전략을 실행하고 연결하는 'AI 혁신 컨트롤타워'

- 2016년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설립, 2025년 서울AI재단으로 새롭게 출범
- AI 행정혁신 — 정책·데이터·AI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의 AI 전환 지원
- 시민 AI 동행 — 시민의 AI 활용역량 강화와 세대·계층 간 격차 해소
- 글로벌 AI 협력 — 세계 연구기관·도시와 공동연구, 인재양성 및 정책 교류
- AI 문화 확산 — 시민 체험과 전문 교류를 통해 서울의 AI 혁신성과 확산
- 「말하면 척척」 서비스 운영



말 한마디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

공공앱 서비스를 말하면 **척척**과 함께

SAIF
서울시재단
Seoul AI Foundation

SEOUL
M! SOUL

